

The Rhetoric of a Lesser Empire: Early Su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by Wang Gungwu.

- 당(唐)의 imperial rhetoric의 계승 문제
- 송과 요는 시초부터 평등한 관계를 유지.
- 979년~986년 송 태종, 燕雲 16주 수복을 위해 遼 공격. 모두 실패. 당시 송은 국력이 절정에 이름. 고려, 탕구트, 참파 등과 조공 관계를 맺음. 요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와 유연성을 강조하는 레토릭이 사용됨.
- 1005년 요와 澶淵之盟 체결. 1125년 요의 멸망까지 계속 유지됨. 歲幣 제공. 이후 송과 요와의 관계는 평등한 국가 사이의 관계.
- 이 시기는 송의 대외적 야심의 adjustment, scaling down.
- 1005년~1013년에 간행된 冊府元龜(역대 군신의 정치에 관한 사적을 추려서 간추린 책, 송대의 4대 편찬서)에 나오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관한 레토릭.
-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전통적인 제국의 레토릭을 포기하지 않는 전략을 발견.
- 당과 티베트의 관계 역시 평등한 국가 사이의 관계였음. 821~822년 동등한 지위에 기초한 외교관계의 체결. 상대국의 군주를 “Great Emperor”로 칭함.
- ‘기미(control by loose reining)’, ‘회유(winning their confidence through kindness)’

Barbarians or Northerners: Northern Sung Images of the Khitans by Tao Jing-Shen

-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평등한 지위에 기초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.
- 한과 흉노, 북위와 남조 국가들, 당과 돌궐, 티베트 관계는 평등한 국가들 사이의 관계. 송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는 특히 북위와 남조 관계와 유사.
- 송과 요의 경우 전연지맹 체결 이후 두 황가는 하나의 가문을 이룬 것과 같이 행동. 어느 한쪽 황제가 죽을 경우 양쪽 황실에서 동시에 장례의식을 치르는 등...
- 호칭에서도 상대방을 北朝, 南朝 칭함.
- 하지만 송의 공식적인 외교문서가 아닌 내부 문서에서는 ‘야만인’이라는 표현이 쓰임. 송은 理와 德을 가진 국가로 묘사, 요는 교화의 대상.
- 요와 송의 관계를 陰과 陽의 관계로 봄.
- ‘Not a clear-cut dichotomy.’
- 범조우(范祖禹), “야만인들은 인간들이며,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들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”고 주장.